

정보화마을의 실제: 반딧불 마을 사례를 중심으로

이현정

국문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정보화마을 사업을 시행하는 마을에서 실제 어떠한 요인이 어떻게 작동하고 어떠한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지 즉, 실제 사업의 역학(dynamics)을 살펴보는 데 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함의를 도출하였다.

첫째, 정보화 기반조성 및 교육으로 인해 실제 주민들의 정보화 접근성이 증대되었고 이는 정보 생활화까지 이어질 수 있게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정보가 생활화 되어지고 소득이 높아지자 주민들간에 화합은 물론 결속력이 이전보다 강화되었다. 둘째, 정보격차 해소, 지역경쟁력 강화,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목표로 평가되어지고 있는 지표의 비적합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한국에서 제2의 새마을사업으로 불리고 있고 해외 많은 국가들이 정보화마을 사업을 벤치마킹하고자 방문하고 있는 상황에서, 연구를 통해 정보화마을 사업 중 실제 어떤 점을 발전시켜야 하고 어떤 점을 수정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게 되었고 나아가 정보화마을 사업이 지역사회 개발 모형으로 해외에 전파되는 것이 적실한지에 대해서도 알 수 있게 되었다.

주제어: 정보화마을, 정보격차, 지역경쟁력, 지역공동체, 반딧불 마을

1. 서론

80년대 중반부터 지역정보화 사업을 통해 정보통신 기반 시설과 정보 기술 활용능력을 높여왔지만 정보화가 진전될수록 지역간 정보격차 및 불균형, 갈등은 날로 증대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역간의 정보격차 해소를 통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1년 3월 ‘정보화마을 조성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01년 19개 마을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정보화마을을 운영 중에 있다.

정보화마을 사업은 2001년부터 현재까지 약 15년간 운영되어져오며 따라 관련연구는 양적으로 매우 축적되어져 있는 상황이다¹⁾. 그러나 대다수의 연구들

1) 선행연구에 대한 정리도 여러 연구에서 진행되어져 있다(최연태·오현주, 2010; 이자성·김종숙,

이 사업의 효과성 및 성과평가에 치중되어 있고, 방법론 또한 통계기법에 의존한 양적연구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즉, 평가항목 별로 지표화하여 점수를 매겨 어느 마을은 잘 되었고 어느 마을은 잘 되지 않았다는 연구 혹은 평가항목을 토대로 점수가 높으면 사업이 성공적이고 낮으면 실패라는 식의 연구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결과를 기반으로 한계점이나 개선점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영삼, 2004; 2007; 서진완, 2005; 김동원·김부철, 2006; 정우열·손능수, 2007; 이팔진·이태영, 2008; 임광현, 2009; 최연태·오현주, 2010; 서진완·임진혁, 2011; 이자성·김종숙, 2011; 황봉기, 2012).

그러나 이러한 측면의 연구들은 평가항목의 점수와 실제 사업이 추진되어지는 정도, 주민들이 느끼는 점 등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즉, 평가 지표가 높게 나와도 정보화마을 사업이 마을에 잘 추진되지 않을 수도 있고, 또한 이와는 별개로 주민들이 실제 느끼는 점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인지·고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전 마을을 대상으로 공통으로 평가되어지고 있는 항목별 추진지표가 실제 정보화마을 사업이 운영되어지는 과정 및 체계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해야 함을 설명해준다.

2015년 현재 한국에는 359개 정보화마을이 운영 중에 있다. 또한 전세계 103개 국가 2,500명의 관련공무원 및 관계자들이 정보화마을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방문하였고, 온두라스, 일본 등에서는 정보화마을 사업을 시범·운영 중에 있다. 2006년에는 세계 전자정부 포럼상을 수상하였고, 2011년에는 UN 공공행정 시상식에서 1위를 수상하는 등 해외에서도 한국의 정보화마을의 우수성을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필요한 연구는 정보화마을 사업을 시행하는 마을에서 실제 어떠한 요인이 어떻게 작동하고 어떠한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지 즉, 실제 사업의 역학(dynamics), 보다 실제적인 연구 일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정보화마을 사업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경기도의 한 마을을 선택하여 사례연구를 하고자 한다. 연구를 통해 정보화마을 사업 중 실제 어떤 점을 발전시켜야 하고 어떤 점을 수정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게 되고 나아가 정보화마을 사업이 지역사회 개발 모형으로 해외에 전파되는 것이 적실한지에 대해서도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II. 정보화마을 사업

정보화마을 사업은 농어촌지역에 초고속정보통신망 인프라를 구축하고 마을 정보센터가 창구가 되어, 지역에서 생산되는 산물을 도시지역에 직거래 할 수 있게 할 뿐 아니라 공공기관에의 민원 서비스 제공, 원격의료 서비스 제공, 주민 정보화 교육 등을 함으로써 농어촌지역을 정보화시대에 맞도록 발전시키고자 시행되었다(고영삼, 2004). 이를 기반으로 정보화마을 사업의 전반은 다음과 같다.

1. 정보격차 해소

정보격차 해소는 정보화 확산 및 주민 정보생활화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기존에 소외된 지역과 계층에 정보인프라를 구축하고 주민들에게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고 정보 활용을 극대화함으로써 정보화에 따른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여 국가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정우열·손능수, 2007: 23)는 것이다.

일상활동에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본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사람은 ‘정보화’를 수용할 때 처음에는 일종의 ‘두려움’으로 접근하는 경향이 있지만 정보화마을 사업은 사람들에게 이러한 두려움을 갖지 않고 수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줄 수 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영삼, 2004: 348).

2.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경제 활성화는 정보화를 통한 소득창출 방안과 연계되어 지역 경쟁력 강화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지역주민들이 인터넷을 통해 정부기관, 병원, 학교, 상점, 식당 등 다양한 곳과 연결이 됨으로써 전자상거래가 활성화 될 수 있다. 또 지역 내에서 지역특산품, 관광, 오락, 식당 등 지역정보를 네트워크상에 제공함으로써 해당지역의 산업 및 상업을 홍보하고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정보화시대에 진입하는 시대적인 상황에서는 정보화 자체를 하나의 산업

으로 발전시켜 정보의 산업화를 만들어냄으로써 산업의 정보화, 정보의 산업화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정우열·손능수, 2007: 23).

이를 위해 정보화교육장, 인터넷 플라자와 같은 주민의 정보생활화는 물론 지역특산물의 판매, 농어업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한 농작물 재배현황정보, 작황정보, 가격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접할 수 있도록 하여 이를 통해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도록 하고자 한다. 나아가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마을별 정보화지도자를 육성하고 수익모델을 창출하여 독자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였다(서진완, 2005).

3. 지역공동체 형성

정보화마을 사업은 마을 주민들의 화합을 통해 마을의 특성을 승화시키고 나아가 주민 개개인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함으로써 주민간에 결속력을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오늘날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확산은 단절된 현대인을 하나의 공동체로 돌아오게 하는 단초가 된다. 이를테면 전자우편, 화상회의, 채팅 등을 통하여 지역주민과의 대화가 가능해질 수 있으며 지역주민들 간의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고 지역정보화 정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장으로까지 연결될 수 있다. 또한 정보화를 기반으로 하는 네트워크의 구축은 계층간·지역간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공유하게 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을 유도할 수 있게 된다(정우열·손능수, 2007: 23).

예를 들어 개인, 작목반 중심의 사이버 동호회를 통해 마을간, 작목반 간의 상호의견을 교환할 수 있고 이들 모임은 직·간접적으로 마을의 생산능가에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다. 나아가 개개인에게는 일상생활에서 벗어나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마련해 줄 수 있다(김유석·박영민, 2006: 9).

이처럼 정보격차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졌을 때 마을 주민간의 정보교류가 확대되고 이를 통한 지역공동체의 활성화를 이룰 수 있게 된다. 이러한 3가지 목표를 통해 마을 스스로 자생적 개발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정보화마을 사업은 정보격차 해소,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공동체 형성이라는 단계적 발전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즉, 정보소외 지역에 인터넷 이용환경을 구축하여 정보접근 기회를 높이고, 주민의 실생활 및 경제활동과 밀접한 콘텐츠를 구축하여 다양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정보생활화와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지역커뮤니티 형성을 촉진시키게 되는 것이다(행정자치부, 2001; 김유석·박영민, 2006: 3).

〈표 1〉 정보화마을 추진목표 별 사업 지표(2001-2012)

부문	항목	지표	2011-12 지표
정보격차 해소	정보화기반 환경	인터넷 가입 변화율	
		교육횟수, 교육참여 인원	
	정보화 교육	교육시간(총시간, 1인당 교육 총시간)	√
		교육과정 수	
		교육만족도 조사	
		정보 생활화	홈페이지 접속건수, 방문자수
	정보 생활화	게시판 게시건수	√
		게시물 조회건수, 댓글수	
		PC 가동률(인터넷 사용시간)	
		PC 사용시간	
메신저 사용시간			
지역경쟁력 강화		소득증진	상품판매실적(특산물, 체험상품 판매건수 및 판매액)
	재구매율		√
	상품개발건수		
	소득증가율		
	지역홍보	자매결연건수, 자매결연체결기관 수	√
		자매결연 교류여부, 교류횟수	√
		언론매체 홍보건수	√
		인발기자활동	√
지역공동체 활성화	주민참여	시, 도 협의회 출석률	
		전자상거래 및 체험관광 참여가구수	
		마을 홈페이지 가입인원수	√
		마을 홈페이지 회원당 활동율	√
	운영자치화	운영위원회 개최건수	√
		운영위원회 참여인원, 출석률, 참여율	
		마을정보센터 이용인원	
		마을운영비 적립금, 센터운영비 지급비율	
화상상봉 이용건수	√		

* 2005년부터 현재까지 평가지표로서, 매년 지표는 변경되고 있음
 ** 주: 안전행정부·한국지역정보개발원(2014), 정보화마을 13년사

Ⅲ. 연구방법 및 반딧불마을 정보화마을 사업 개요

1. 연구방법

본 연구는 사례연구²⁾를 통해 이루어졌고, 자료수집은 현장연구³⁾를 통해 이루어졌다. 현장연구는 주제에 대한 응답자의 의도, 신념, 태도 등을 조사하기 위해 응답자의 숨겨진 의도를 파악하는 심층면접과, 6-10인으로 구성된 집단의 자유로운 토론과정을 통해 발견·이해하는 집단면접을 통해 이루어졌다.

현장조사 연구의 경우 중요한 것은 조사대상지역과 조사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이다. 조사대상지역의 경우 정보화 최우수 마을, UN 거버넌스 센터 전직원 방문 마을, 제1호 스마트 정보화마을 등의 지표를 토대로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반딧불마을(엄소리)을 선정하였다. 모든 연구에는 연구자의 주관이 얼마만큼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연구의 객관성을 위해 지역을 선택하기 전에 정보격차해소, 지역경제활성화, 지역공동체형성 부분에서 정보화마을 사업이 실제 얼마만큼 시행되었는지를 알아보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조사대상자 선정과 관련해서는 조사대상 지역 거주자들 중 정보화마을 사업을 핵심적으로 주도하는 정보화마을 센터 관리자, 마을리더(이장) 등을 중심으로 이들 당사자와 당사자 주변 관련인물들과의 심층면접 및 집단면접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심층면접은 3차례, 반표준화면접법(semistandardized interview)을 통해 이루어졌다. 중요한 질문은 표준화하고 질문순서나 질문방법 등은 융통성을 가지고 상황에 따라 변경시켜 진행하였다. 집단면접은 마을회관 혹은 마을정자에서 2차례 실시하였으며 그 시간, 그 장소에 있는 사람들을 6-7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⁴⁾.

2) 사례연구는 사례의 수에 따라 단일, 소수, 다수사례연구로 구분되어 진다. 본 연구는 단일사례연구로 진행되어지며, 단일사례연구는 사회의 중요한 특징을 해석하고 현존하는 사회적 현상이 어떻게 생기는지 등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더불어 즉각적이고 해결할 수 있는 실제적인 목표달성에 용이하고 설득력있는 인과관계의 설명이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다 (Rueschmeyer, 2003; 이현정, 2013).

3) 현장연구는 연구자가 사회현상에 직접 접근함으로써 현상에 대해 보다 깊고 완전한 이해를 할 수 있으며 다른 방법으로는 측정되기 어려운 미묘한 특징들을 간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Babbie, 2007).

4) 심층면접 및 집단면접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이현정(2013) 참고

이 같은 자료수집은 2013년 7월부터 2014년 9월까지 수차례 산발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연구 및 면접에 필요한 자료들은 관련기관 홈페이지를 적극 활용하였다.

2. 반딧불 마을 정보화마을 사업 경위 및 현황

반딧불 마을은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엄소리로, 서울에서 차로 50분 거리에 위치해 있다. 마을전체가 산으로 둘러쌓여 있는 전형적인 산촌마을이다. 산촌임에도 마을중간에 냇가가 있어 가뭄이 적고, 1970년대 치산사업의 일환으로 산에 잣나무를 심어 마을 전체가 잣농사를 주 수입원으로 하고 있다.

2014년 현재 약 345명의 주민, 약 155가구가 거주하고 있으며, 정보화마을로 알려진 2009년부터 인구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또한 정보화마을 유형 중 체험마을이 되면서부터 연간 500~800명이었던 방문객이 현재는 10,000명 정도로 매년 증가하고 있고, 이주민 역시 증가하고 있는데, 40-50대 연령의 유입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⁵⁾.

반딧불 마을은 1970년대까지 우봉이(李)씨가 마을 주민의 약 80% 정도를 차지하는 이씨 집성촌이었지만 현재는 우봉이씨가 약 50%이고 그 외에 전주이씨 등 본관이 다른 이씨 및 타성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반딧불 마을의 정보화 사업은 2005년 제4기, 체험관광형으로 시작하여, 현재 9년차에 접어들었고, 2012년에는 제1호 스마트 정보화마을에 선정되며 최우수 정보화마을로 손꼽히고 있다.

반딧불 정보화마을에는 이장(정보화마을 위원장), 부녀회장, 센터 운영자를 필두로 10명 내외의 정보화마을 운영위원회가 있다. 정보화마을 사업 시작 전 10-15명의 사업추진위원회가 사업을 추진하였고, 이 후 사업이 본격화 되어진 후에는 마을 주민 60명 이상이 개인적으로 10만원씩 출자를 하여 정보화마을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였다. 현재 인빌쇼핑 및 체험마을을 통해 거두어진 이득은 다시 출자자들에게 되돌려주고 있다.

5) 처음 마을에 들어온 사람들도 있겠지만 다수는 젊은 시절에 도시로 나갔다가 다시 회귀하여 유입된 경우라고 한다.

반딧불마을은 정보화마을 위원장(이장)과 부녀회장(산촌마을 운영자), 센터 운영자⁶⁾를 중심으로 운영되어지고 있다.

〈표 2〉 반딧불 마을 마을리더

년도	2005	2006	2007	2008	2009
이장	이지형	최인혁	최인혁	최인혁	장재만
부녀회장					
운영자					
년도	2010	2011	2012	2013	2014
이장	장재만	장재만	장재만	장재만	장재만
부녀회장		최복례	최복례	최복례	최복례
운영자	문부흥	문부흥	문부흥	문부흥	문부흥

* 주: 마을이장과 부녀회장은 투표를 통해 2년마다 바뀌어 왔으나 2011년부터는 연임(장재만은 2번 연임)

IV. 반딧불 마을의 정보화마을 사업

반딧불 마을에 정보화마을이 시작된 2006년부터 현재까지 정보격차해소, 지역경제활성화, 지역공동체형성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정보격차 해소

정보격차 해소는 ‘정보화기반 환경’, ‘정보화 교육’, ‘정보 생활화’를 주요 항목으로 하고 있다. 주민들에게 물리적으로 컴퓨터 보급 및 인터넷 보급을 통해 정보화기반 환경을 조성하고 정보화 교육을 통해 정보생활화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각 항목별로 인터넷 가입 변화율, 교육횟수 및 교육참여인원, 교육시간, 홈페이지 접속건수, 게시판 게시건수 및 조회건수, PC 사용시간 등의 지표를 통해 정보격차가 해소되었는지를 평가하고 있다. 최근에는 교육시간(총 시간, 1인당 교육 총시간), 홈페이지 접속건수 및 방문자수, 게시판 게시건수를 평가하고 있다⁷⁾.

6) 센터 운영자는 127만원의 월급을 받고 있음. 월급의 10%는 마을기금으로, 그 나머지는 가평군에서 충당하고 있다.

정보격차 해소는 정보화의 인프라 제공 및 교육을 통해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정보화에 대한 두려움을 줄이는 것 그 자체에 의미를 두고 시작되었다. 이러한 내용에 기반했을 때, 반딧불 마을은 정보화 교육을 통해 주민들이 스마트폰, 컴퓨터 및 인터넷 사용을 할 수 있게 됨으로서 사업의 본래 취지인 정보 생활화를 달성했다고 할 수 있다.

교육은 팝업창에 올리거나 핸드폰 메시지로 통보해줘. 당일도 개인적으로 연락하고. 거의 50-60대 20-30명씩 참여해.

스마트폰 있는 사람들 위해서 KT나 삼성에서 한달에 두 번씩 일요일에 와서 교육해줘. 스마트폰 없는 사람은 센터에 비치되어진 탭을 통해서 교육받고. 스마트폰 없는 사람들은 기계를 쓸 수 있다는 거에 의의가 있는거지. 또 교육받고 각자 블로그 만들어서 사진도 올려보고. 60대 어르신들 참여가 가장 높아. 80대 이상 어르신들 빼고 대부분 스마트폰 쓰니까 그분들은 사진 보내고 메일 보내는건 거의 하실 수 있을 걸. 하지만 80대 이후 분들은 엄두를 잘 못내지. 눈도 어두운데 뭘. 그런데 80대 김용재 할아버지는 여기서 교육받은걸로 여행간거 농사지은거 사진 올리고 동영상까지 올려. 그분 때문에 마을 홈페이지가 활발히 운영되고 있지.

마을행사 관련해서 내가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해서 홈페이지에 올리면 주민들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거나 컴퓨터 잘 못하시는 분들은 정보센터에 직접 오셔서 보기도 하고 그래.

나아가 정보화를 통해 사회적 불평등 감소, 정보화에 대한 두려움 감소까지 달성했으므로 정보격차 해소를 이루었다고 할 수 있다.

정보화마을 하면서 컴퓨터 60대 지원해줬어. 인터넷비는 본인부담이니까 진짜 쓸 사람들만 가져갔지. 여기는 농사만 짓고 찹쌀산골, 두메산골이야. 스마트 마을로 도시 사람들이 놀러오고 컴퓨터를 통해서 새로운 것을 배우고. 다른 세상이 있다는거에 놀라는거지. 또 애들한테 안묻고 본인이 할 수

있다는 거에 신기해 하는 거지. 염소 키우소 소 키우고 하는거 블로그에 올리고 보고 신기해하고들 그래.

어르신들 중에는 그냥 재미로 교육을 받는분들이 있어. 그냥 신기한거야 그분들은.

정보화마을 취지가 각 가정에 컴퓨터 놓아주고 집에서 통신판매하고 관리자가 운영하고 관리하는거 아냐? 예전에는 교직에 있어도 컴퓨터에 대해 잘 몰랐는데 센터에서 배우면서 알게됐지. 진짜 신기한 생활이야. 하지만 주민들이 영어를 잘 모르니까 조금 한계가 있는거 같아.

그러나 이렇게 성공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반딧불 마을이지만 정보격차 해소를 평가하는 지표인 “정보화마을 홈페이지를 얼마만큼 활발히 사용하는지 그리고 센터가 얼마나 활발하게 운영되는지, 교육시간이나 횟수가 얼마나 잦은지, 홈페이지 접속자수 및 방문자수, 게시판 게시건수, 댓글수” 등의 지표는 높지 않다고 한다.

이는 정보화마을 사업 9년차에 접어든 반딧불 마을 주민들 대다수가 약 9년간 센터의 교육을 통해 컴퓨터나 인터넷,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이에 따라 더 이상의 스마트 교육에 대한 수요가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현재는 정보화마을 사이트 외에 개인 홈페이지 및 SNS를 사용하고 있어 정보화마을(인빌) 사이트는 더 잘 이용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⁸⁾.

요즘은 내 페이스북(facebook)으로 손님들이 들어와서 사진 퍼갈 수 있게 했고 여기서 손님을 받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어. 인빌 사이트보다 페이스북이 더 좋다고들 하더라고. 그래서 시작했지.

작년까지만해도 화상으로 법률상담이나 의료상담을 활발하게 했는데 요즘은 잘 안하고 있어. 현재는 신기함도 떨어졌고 의사나 법률가들이 직접와서

8) 체험고객이나 방문자들이 인터넷 보다는 개인적으로 주민들과 연락을 주고받아 물건을 구매한다거나 체험을 예약하는 일이 더 많아지고 있다고 한다. 동 연구자가 인터뷰를 갔었을 때에도 이전 체험고객이 부녀회장에게 개인적으로 전화를 하여 고추를 주문하고 있었고, 체험예약도 페이스북 메시지로 하고 주고받고 있었다.

보고 말하자고 하니까 안하지. 수요가 없는 상태야 지금은.

SK텔레콤이나 KT에서 많이 와서 해줬는데 이젠 대부분의 노인들이 스마트폰 하게 돼서 더 이상 교육이 필요없다고 봐. 삶의 질 올라갔고 자신감 생겼으면 된거지 뭐. 스마트 교육에 대해 더 이상 수요 없는게 당연한거 같아. 그런데 대신 봉사활동 오겠다는 사람들은 막지 않아. 대학생들이 사이트 보고 자발적으로 오고 있는데 온다고 하면 주민들에게 문자로 통보하고 홈페이지에도 올리고는 있지. 그래도 한두달에 한번은 오는 편이지.

이처럼 예약이나 주문을 SNS로 주고 받고 있는 상황, 즉, 정보격차 해소는 물론 그 이상으로 나간 시점에서 아직도 동지표를 가지고 운영상황을 평가하고 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더욱이 분기별로 가평군, 경기도청에서 높은 지표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제⁹⁾, 이 또한 무시할 수 없어 반딧불 정보화마을 운영에 애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올해는 사이트 방문자 수를 없앴어. 특히 그 평가지표에서는 댓글수도 세는데 지금 방문자들 때문에 얼마나 바쁘게 그 댓글 수를 언제 다 세고 있어. 그리고 하나하나 대응하기도 힘들어. 지금 마을사업이 너무 커져서 나 혼자 센터운영이랑 체험마을 손님 받는거까지 하려니 부담되고 있어.

2.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경제 활성화는 ‘소득증진’과 ‘지역홍보’를 주요항목으로 하고 있다. 정보화를 통해 소득증진은 물론 지역홍보까지 함으로써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지역경쟁력이 강화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각 항목별로 상품판매실적, 재구매율, 상품개발건수, 소득증가율, 자매결연건수, 교류횟수, 언론매체 홍보건수, 인빌기자 활동 등의 지표를 통해 지역경쟁력이 강화되었는지 평가하고 있다. 최근에는 상품개발건수를 제외한 모든지표를 평가하고 있다¹⁰⁾.

반딧불 마을의 온·오프라인상 상품판매 실적 및 재구매율 실적은 낮다. 이는

9) 그러나 지자체도 지표를 무시할 수 없는 이유가, 2009년 7월, 8차 사업부터 정보화마을은 지자체 예산으로 운영되게 되었다. 따라서 센터 운영자의 월급(127만원 중 90%), 기타 지원금을 지자체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다.

10) 표1 참고

전자상거래가 활발하지 못한 이유가 가장 크고, 전화주문 및 직접 방문하여 구입·구매를 하는 고객들이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운영자가 이를 일일이 파악하기 어려워 지표 산출에 어려움이 생기게 된다. 이는 전자상거래만이 소득을 증대시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설명해준다¹¹⁾. 그러나 거래의 처음은 정보화마을 사이트(인빌)를 통해 고객들이 마을 정보를 알게 되고 이를 통해 전화 혹은 직거래로 물건을 구입하거나 체험을 오게 되는 것이므로 이 또한 간접적인 전자상거래라고 할 수 있겠다.

인터넷 상거래를 통한 직접거래는 저조한 편이에요. 인터넷으로 직거래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정보화마을 홈페이지를 보고 전화를 걸어 문의하면 관리자가 농가에 직접 연결하여 판로를 열어주고 있지. 이는 인터넷 직거래라고는 할 수 없지만 홈페이지를 보고 이용한 것이어서 정보화마을 사업의 성과라 할 수 있지 않아요? 체험객들은 대다수가 홈페이지를 보고 문의하여 오고 있고, 설악면이나 가평군에 문의하는 체험객들은 대다수가 반딧불 마을로 오고 있어요.

체험객들이 주민들을 상대로 1대1로 물건 구입을 많이 해요. 그러니 동네 소득증가표에 포함되지 못한게 많을거야¹²⁾.

반딧불마을은 정보화마을 사업 유형 중 체험관광형¹³⁾으로 다양한 체험상품을

11) <반딧불 마을 소득 증감>

년도	금액(원)
2006년	104,000
2007년	1,094,000
2008년	6,451,000
2009년	4,457,000
2010년	36,669,000
2011년	42,058,000
2012년	650,796,000

* 마을전체 소득은 펜션운영비와 텐트임대비, 체험상품비만 포함되었음.

12) 본 연구자가 마을에 방문을 했을 때에도 체험객들이 1대1로 주민들에게 농산품을 구입했고 체험객이 주문을 하는 순간 주민은 옥수수를 따오거나 고추를 따서 그 자리에서 팔았다.

13) <정보화마을 유형>

개발하고 고객관리 기법 및 관광 서비스 능력향상을 통해 농어촌에서 가장 부가가치가 높은 상품인 체험, 주말농장, 테마여행 등의 다양한 상품개발과 판매를 목표로 한다. 체험관광형은 마을 방문객에게 그 지역특산물 또는 친환경 농산물을 재배·생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농어촌 생활체험을 통해 1차 산업을 서비스 산업으로 가치를 창출하는 형태로 전환하는 유형이다. 이 유형에서는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보다 효율적이고 주민참여형 사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각계각층의 마을 조직과 기구, 인력 등을 활용하여 역할을 분담하여 운영토록 한다. 기존 체험 프로그램을 반복하여 진행하는 것이 아닌 체험 프로그램 개발투자를 통해 새롭고 다양한 응용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수요자의 흥미를 유발하는 것이다(두정완, 2012).

반딧불 마을에서는 2007년에 산림청으로부터 산촌마을로 지정됨에 따라 20억을 지원받았다. 지원금으로 펜션 5동을 지어 정보화마을 홈페이지에 올렸고, 각 주민들 가정에 잉여 농작물이 무엇이 있는지 파악하여 숙박과 체험을 동시에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방문자들이 많아지게 되었고 주민들은 방문자들을 상대하면서 소득이 높아지기 시작하였다.

2005년에 정보화마을로 지정되었고 2007년 산촌마을로 지정되어 20억을 받았어요. 지원금으로 마을에 펜션 5동을 지었지. 펜션이 있으니 정보화마을 사이트에 올렸고 이게 자연히 체험마을로 활성화되는데 도움이 된거죠. 그러다가 2012년에는 스마트마을 1호로 지원되서 8,000만원 지원 받았어요. 그 결과 센터를 도서관 식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된거고 다 연계가 잘 된거죠.

농민들이 와서 우리집에 손님 불러달라고, 우리집에 무슨무슨 체험 할 수 있다고 말해줘요. 옥수수 농장하면 옥수수 체험 할 수 있다고 우리한테 알

구분	유형	
소득형	특산물 판매형 (전자상거래형)	작목반을 중심으로 지역 특산물의 인터넷 판매
	체험관광형	지역 명소 견학 및 농어촌 체험 등 관광 중심
	복합형	특산물 판매형과 체험관광형의 복합 형태
비소득형	커뮤니티형	마을의 공동체 활성화 및 정보격차 해소가 중심

* 주: 행안부·한국지역정보개발원, 2008; 두정완, 2012

려주는거지. 그럼 옥수수 체험하러 오면 애들 한명당 검은봉지 하나씩을 줘요. 그럼 거기에 옥수수를 5개까지 따서 넣을 수 있는거야. 하나에 1,000원으로 책정해서 5,000원으로 받아요. 그럼 4,000원은 농가에 주고 1,000원은 정보화마을 운영금으로 써요. 그럼 농가들은 좋지. 어디서 옥수수 하나를 1,000원씩이나 주고 팔어. 그런데 또 단점은 애들이 와서 안따지면 옆에꺼 따고 해서 옥수수가 망가질 수 있어. 그런데도 하는거 보면 이득이 있는 거겠지.

반딧불 마을에는 자연적·지리적 여건도 작용을 하였다. 지리적으로 도시와 가깝다는 이점¹⁴⁾과 자연적으로 오염되지 않은 자연환경이 마을이 개발되는데 이점으로 작용한 것이다. 산촌마을이라는 어두운 자연환경을 이용하여 오염안된 깨끗한 마을로 인식시킴으로서 산촌생태마을 사업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가 배가되었다.

이 마을은 작고 오목한 마을이라 체험손님이 오면 주민 여럿이 참여해야 하고 동참해서 같이 돌아다녀야해요. 왜 이런 마을별 특성은 모르고 지표지표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기는 두부, 김치만들기, 소·염소 체험, 허부체험...이런거 하려고 아이디어 내는게 얼마나 어려운데. 그리고 주민들이 또 무엇을 제공할 수 있는지도 다 알기도 어려워요. 그러려면 동네 주민들이 뭘 생산하고 수확하고 얼마만큼 남는지 알아야 그걸 체험객들한테 팔 수 있는거잖아요. 100명이 체험을 오면 각기 나누어서 골고루 주민들 집에 가게 해요. 한 집이 몰아서 잘 살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 주민들이 전체적으로 잘 살게 되는거죠.

또 지금은 체험객들 받는다고 동네에 짜투리 땅이 없어졌어. 거기에 옥수수 심고 두릅심고 해서 체험객들 오면 그걸로 여유자금을 벌지.

이렇게 체험상품이 활발해지자 입소문이 나서 자연적으로 언론매체에 홍보가 되어졌고 이에 외지에서도 방문하는 손님들이 많아지게 되었다. 방문객들이 많아지자 동네가 활발히 움직이게 되었고 이에 따라 지역홍보는 물론 소득이 증대

14) 서울(잠실)에서 차로 40분. 버스로 1시간 내외

되었다.

정보화마을 하기 전에는 여기가 깡촌이어서 누가 오질 않았어. 근데 이 산골에 방송국에서 오고 외국에서 오고 하니까 마을을 서로 자랑스럽게 느끼지. 32개 설악면 중에서도 우리 마을이 제일 잘 돼서 다들 우리 마을을 인정 해주지. 도시사람들도 와서 칭찬해주고 하니까 우리 주민들끼리 정도 돈독해지고 그러다보면 더 자주 모이고 하니까 서로 좋아하는거야.

정부의 정책적 지원은 마을의 초기 혁신을 확산시킬 수 있는 중요한 유인책이다. 지원금 뿐 아니라 홍보, 시상, 마을소개, 내·외국인 방문 등도 포함된다. 이를 통하여 마을의 가시적 성과가 알려지게 되고 주민들의 자부심이 고취되면서 공동체에 대한 애착이 강해지게 된다. 이렇듯 소득증진은 물론 지역홍보까지 되어 반딧불 마을의 지역경쟁력은 매우 강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정보화마을 하기 전과 후를 비교하면 진짜 마을이 좋아졌어요. 무엇보다 산골에 방송국에서 오고 UN인가 외국에서도 오고 하니까 마을주민들이 서로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거야. 또 도시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와. 그러니까 주민들끼리 정도 돈독해지고 손님들때문이라도 많이 모이게 되니까 서로 좋아하는거지. 외국인 관광객이 올해만 4번 왔어. 중국, 에티오피아, 이라크 등 여러 나라에서 왔는데 이들이 방문하면 마을 분위기가 좋아져. 김치, 인절미, 계란꾸러미 만들기 등을 하고 또 정보화마을에 대해 브리핑도 하고, 작년에 온 성균관대 석사 공부하는 외국인 학생들은 올해 또 온거예요. 우리가 오라고도 안했어요. 그냥 자발적으로 온거야. 인재개발원에서도 추천하고 관광청에서도 추천해주고 그런데요. 우린 뭐 아무도 그런데 신경 안쓰니까 잘 모르겠네. 그럼 진짜 우리 마을 유명한거 아니에요?

이전에는 외지사람들이 왔다갔다 하니까 별로 안좋아하는 마을분들이 있었어. 그런데 이제는 품값을 주고 마을이 잘 사니까 다들 좋아하지. 무조건 참여해.

그러나 앞서도 설명했듯, 반딧불 마을은 지역경쟁력 지표또한 높지 않아 운영

평가에서는 그리 높은 점수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마을의 소득이 높아졌고 지역경제도 활성화되어 지역경쟁력이 높았다고 주민들이 모두 인지하고 있음에도 지표가 낮다는 것은 지표와 실제 운영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입증해준다.

지역경쟁력이라는게 체험마을 사람들이 홈페이지 보고 전화해서 방문객이 많아졌고 또 그들이 자체적으로 홍보하고 그러는데 지표가 낮다고 뭐라하는게 말이 안되죠. 외국에서도 계속 오고 방송국에서도 서로 오겠다고 하는데, 특히 생생정보통에서도 자발적으로 와서 찍었는데 그게 지역경쟁력 지표가 낮다고 할 수 있는거예요? 이걸 정보화마을 성공이라 하는거지 지표를 보고 평가하는건 말이 안되요. 정보화마을 취지를 오히려 공무원들이 모르는건 아닌가 모르겠어요.

타지 사람들이 오히려 마을 홍보를 해주고 있고 어디에 우리마을 홍보가 나왔다고 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잘 되고 있는데 지표가 낮다고 하는건 참 그렇죠.

3. 지역공동체 형성

지역공동체 형성은 ‘주민참여’와 ‘운영자치화’를 주요 항목으로 하고 있다. 주민참여를 도모하여 마을운동을 자치적으로 할 수 있게 됨으로서 지역공동체가 활성화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각 항목별로 시·도 협의회 출석률, 전자상거래 및 체험관광 참여가구수, 마을홈페이지 가입인원수, 운영위원회 개최건수 및 참여율, 정보센터 이용인원, 마을운영비 적립금, 화상상봉 이용건수 등의 지표를 통해 지역공동체가 활성화되었는지 평가하고 있다. 최근에는 마을홈페이지 가입인원수 및 활동률, 운영위원회 개최건수 및 참여율, 화상상봉 이용건수 지표를 평가하고 있다¹⁵⁾.

동 내용을 살펴보기 앞서 반딧불 마을의 분위기를 보면, 마을 주민들은 서로들 이전부터 반딧불 마을이 주민들간의 사이가 좋았다고 하였다. 이는 반딧불 마을

15) 표1 참고

의 주농산품인 잣나무 열매 수거와 노인회의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다.

먼저 잣나무 예를 보면, 1970년대 치산녹화 사업의 일환으로 반딧불 마을 전체에 잣나무를 심었다고 한다. 그 후 잣을 수거할 때 산 주인이 잣을 1차로 수거하고 그 나머지는 남겨놓아 땅이 없는 주민들이 수거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한다. 이는 현재까지도 이어져 동네주민 모두가 잣으로 수익을 거둘 수 있게 하고 있다.

여기는 산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잘 살았던 것은 잘 사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땅 있는 사람들이 잣을 1차로 수거해가면 2차로 산 없는 사람들이 나락을 수거할 수 있게 했기 때문이에요. 나락도 꽤 되는 양이어서 땅 주인이 따간 후에도 수입이 꽤 많았지요. 다 그렇게 사는거지요.

노인회의 예는, 노인회에는 예전부터 내려오는 여유자금이 있기도 했지만 노인회 소유의 토지에서 나오는 수확물을 통한 소득을 마을주민들에게 배풀어주고 있다고 한다. 이렇게 먼저 어르신들이 배풀고 도움을 줌으로써 주민들 간의 사이가 공고해지는 것으로 보인다.

노인회가 돈이 좀 많아서 마을에 잔치를 하면 잔조를 할 수 있지. 며칠전에는 1박2일로 노인회 돈으로 거제도, 부산에 다녀왔는데 그 돈은 예전부터 내려오는 돈이 있고 노인회 자체로 빌려서 운영하는 논, 밭이 꽤 돼서 공동생산을 통해 이익금을 노인회 자금으로 운영하고 있어. 그리고 그 체험농장이랑 체험객들 밥해주고 받는 일당 5만원으로 노인들에게 여유자금이 생기게 된거야. 밥하는거 어려운일 아니라고 노인들을 많이 써줘서 몸이 아픈 노인들에게도 여유자금이 생겼지.

노인회에서 젊은이들에게 오히려 대접을 해줘. 초복, 중복 때 삼계탕을 대접 해주지. 노인회에서 콩 심고 밭 매서 돈이 많아. 그리고 부인회나 청년회도 노인회에 대접해주기도 하고, 서로 대접해주고 하지. 1박2일 노인회 여행을 갈 때 부녀회에서 노인들 놀러간다고 잠바 하나씩 다 해줬잖아. 얼마나 좋아 다들.

또한 정보화마을 사업을 통해 주민 모두가 모일 수 있는 장소가 생겨, 같이 식사를 할 수 있게 된 것도 영향이 있다고 한다.

정보화마을, 스마트마을 되면서 마을회관을 개보수했고, 회관 뿐 아니라 주민들 전체가 모일 수 있도록 대규모 식당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한번에 모일 수 있고 보통 때에는 체험객들이 와서 식당으로 사용하죠. 여기서 사람들이 삼계탕도 대접하고 보신탕도 대접하고 그래요¹⁶⁾.

반딧불 마을은 우봉이(李)씨 마을로 1970년대까지는 마을의 70%이상이 이씨였고 현재도 40%이상이 이씨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주민들간에 서로 돕고 사는 문화가 있어 왔다고 한다.

우리가 이씨마을이라 그런가 다른 마을에 비해 인심이 좋아요. 이건 가평균수가 인정했어요. 설악면에 32개 리가 있는데 우리마을이 다른 마을에 비해 단합이 잘 되요. 나오라 그러면 다 나오고 가족같은 분위기에요. 산으로 둘러싸여서 그런가. 마을 자체가 오목한 분위기고 서로 위로해주고 그래요.

또한 대동회가 1년에 2번 정기적으로 열려 마을 주민 전체가 참여하고 있고 대동회에서 마을이장 선출을 포함한 마을의 중요 일들을 처리하고 있다고 한다. 정보화마을 운영위원회는 마을 주민 10명 이내로, 이들은 이장(정보화마을 운영위원장), 부녀회장, 센터 운영자를 포함한 마을 일꾼들로 구성되어 있다. 정보화마을 운영위원회는 상시 열리고 있고 2009년도부터는 노인회장도 참여하고 있어서 전연령대의 의사가 반영된다고 한다.

대동회의는 1년에 2번 열리고 그 외에 마을에서 필요할 때 열리고 있어. 주민들은 100% 나오고 있지. 그리고 마을 사업관련 운영위원회는 상시로 열리는데 노인회장님도 모시고 있지요.

체험객들이 많아지면서 체험객들에게 밥을 해주거나 심부름을 해야 하는 사

16) 인터뷰를 갔을 때에도 장수마을 선정으로 받은 지원금으로 마을에 두부기계를 들여와 노인회에서 20kg짜리 콩 한포대를 기증하여 온동네 주민들이 두부를 시식하고 있었다.

람들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운영회위원회 회의를 통해 노인들을 돌아가며 일당을 주고 고용하여 돈을 벌 수 있게 하는 것은 물론 서로 어울릴 수 있도록 하였다.

일당 5만원은 젊은 노인들에게 큰 돈이야. 체험객이 100명 이상일 때에는 도와주는 사람이 여럿 필요해요. 그럼 와서 일하고 돈도 벌고 주민들끼리 얼굴도 보고 놀고 하는거지. 한끼 식사 제공에 5만원이니까 큰돈이라 할 수 있어요.

했던 사람들이 계속 일을 하는게 아니고 돌아가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몸이 힘든 어르신들도 포함시켜서 집에만 계시는게 아니라 움직이시도록 하고 있어요. 그럼 돈도 벌고 주민들도 만나고 좋지 뭐.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앞서 설명했듯이 반딧불 마을의 전자상거래, 마을홈페이지 가입인원 및 활동율은 저조하지만, 오프라인 활동은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체험관광도 잘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마을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음에도 지표율 이유로 반딧불 마을의 지역공동체 활성화가 낮다고 평가되어 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반딧불 마을은 2012년 스마트 정보화마을로 선정되어 8,000만원의 지원금 받았다. 논의를 통해 노후한 컴퓨터를 바꾸고 책을 구입하여 센터 한켠에 도서관을 만들고 에어컨을 놓는 등의 변화를 주기로 하였다. 주민들이 활발히 드나들 수 있는 공간으로 리모델링하자하는 것이었다. 결국 리모델링을 통해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과 40-60대의 젊은 어르신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생기게 되었다. 지역공동체 활성화는 계층간 화합 및 대화점을 찾아 지역사회의 통합을 유도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으므로 이 또한 사업의 취지와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그전에는 그냥 교실같은 분위기여서(센터) 많이들 오기 별로였어, 그런데 들어오는 입구, 계단에서부터 신경써서 들어와보고 싶게 만들었지. 그렇게 만들라고 여러군데 도서관을 돌아다녀서 우리 실정에 맞게 도서관을 꾸민 거야. 그리고 50-60대 사람들이 농촌에서 제일 애매해. 근데 그네들이 여기

드나들게 돼서 커피도 마시고 컴퓨터도 하고 애들이랑 메일도 보내고 할 수 있게 된거지.

동네 애들도 이용하고 애들이 어디 모여서 같이 공부할 공간이 생겨서 좋은 거지. 피씨방 안가도 되고. 여기 큰 탁자에 모여서 같이 책도 읽고 공부도 하고 컴퓨터도 하고. 또 방학에는 할머니 보러 와서 놀 수 있는 공간이 생겼어. 지루하지도 않고.

반면 화상상봉 이용건수로 운영자치화 항목을 평가하고 있는데, 현재 반딧불 마을에 다문화가족은 한 가정이 있고, 개인적으로 스카이프(SKYPE)를 통해 고향과 연락하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화상상봉 이용건수 또한 동 지표에 적합하지 않다.

다문화가정을 위해 화상상봉을 할 수 있도록 설치했는데, 여기에 사는 다문화 가정은 모두 가정에 컴퓨터가 있어서 정보센터에서 이용하지 않아. 다만 여기와서 궁금사항만 물어볼 뿐이지. 하지만 영어만 지원이 되어서 가르쳐 주기 곤란할 때가 있어. 왜 다 전부 영어로 해냈는지 몰라.

반딧불 마을은 인빌(홈페이지) 사이트에서 판매중인 상품에 대한 이윤과 체험 고객 1인당 1,000원씩의 배당금을 통해 운영되고 있다. 이 이익금을 통해 센터 운영자의 월급, 센터 운영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인빌에서 판매중인 상품은 현재 잣, 쌀을 팔고 있어. 두 상품은 모두 판매 부탁한 주민의 상품이고 카드 수수료 등 제할 것 제한 후 이윤의 0.3%를 마을기금으로 내놓고 있어요.

손님 1인당 1000원씩 마을기금으로 모아지고 그 돈으로 센터 운영, 관리자 월급의 10%를 충당하고 있어. 관리자는 월 127만원을 받는데 그 중 10%는 마을기금으로, 나머지는 가평균에서 주고 있지.

지역사회의 통합, 주민들 간의 결속력 강화를 강조하는 지역공동체 활성화의

내용에서 볼 때 반딧불 마을은 동 목표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V. 결론

2001년부터 현재까지 약 15년 동안 운영되어져 온 정보화마을 사업에 대한 연구는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대부분의 연구들은 지표를 기반으로, 효율성이나 성과평가 측면으로 접근하여 어떤 지표가 정보화마을 사업에서 중요하고 이에 따라 어떠한 점을 개선시켜야 하는지 등에 관한 연구로 치우쳐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실제 사업이 추진되어지는 과정이나 정도, 주민들이 느끼는 점 등은 다를 수 있다는 점, 지표가 높아도 사업이 실제로는 잘 추진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혹은 그 반대) 등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보다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사업의 역동성을 알아보기 위해 경기도의 한 마을을 선택하여 사례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과가 도출되었다.

첫째, 정보화 기반조성 및 교육으로 인해 실제 주민들의 정보화 접근성이 증대되었고 이는 정보 생활화까지 이어질 수 있게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정보화의 영향으로 마을에 관광객이 많아지고 농산품판매가 증대되어 마을의 소득증진은 물론 다른지역까지 반딧불마을의 영향력이 전파되어 마을홍보까지 이룰 수 있었다. 결국 이렇게 정보가 생활화 되어지고 소득이 높아지자 주민들 간에 화합은 물론 결속력이 이전보다 강화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정보격차 해소, 지역경쟁력 강화,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목표로 평가되어지고 있는 지표의 비적합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매년 정보화마을 사업을 담당하는 담당자들은 정책추진 방향을 설정하는데 유용하도록 사업의 운영성과를 계량적으로 측정하고 있고 이를 토대로 정보화마을의 운영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지만(안전행정부·한국지역정보개발원, 2011), 제시된 지표로 실제 정보화마을 사업을 측정·평가하는데에는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측정지표들은 마을별 특수성이나 역량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아 운영상의 어려움도 노정하였다. 이는 지표가 사업을 실제로 잘 운영하거나 잘 운영되어지도록 만들어진

것이 아닌 사업평가를 위해 만들어진 것임을 설명해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전 마을을 대상으로 공통으로 평가되어지고 있는 항목별 추진지표를 실제 정보화마을 사업이 운영되어지는 과정 및 체계, 특수성이나 역량차이를 반영·고려하여 다시 도출되어져야 하겠다¹⁷⁾.

정보화마을 사업은 한국에서 제2의 새마을사업으로 불리고 있고 해외 많은 국가들이 정보화마을 사업을 벤치마킹 하고자 방문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보화마을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마을에서 실제 어떠한 요인이 어떻게 작용하고 어떠한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지 등과 같은 보다 실제적인 연구들이 요구된다. 이에 따라 후속 연구에서는 이러한 논의를 기반으로 심도깊은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참고 문헌

- 고영삼, 2004, “정보화시범마을의 실태와 활성화 방안연구: 울산지역 시범마을을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8(3): 343-364.
- 고영삼, 2007, “지역간 격차해소를 위한 지역혁신 관점의 u-농촌 모델 연구”, 「한국지역정보학회지」, 10(4): 165-195.
- 김동원·김부철, 2006, “정보화마을의 성공요인을 통한 발전모델의 수립: 경상북도 두 마을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거버넌스학회보」, 13(1): 1-30.
- 김유석·박영민, 2006, “정보화마을사업의 활성화 전략에 관한 연구: 조성목적별 현황 및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 두정완, 2012, “정보화마을의 운영현황과 합리화 방안: 경상남도 거제도를 중심으로”, 「한국도서연구」, 24(4): 39-58.
- 서진완, 2005, “정보화마을사업의 딜레마와 방향성의 모색”, 「한국정책과학학회보」, 9(3): 95-114.
- 서진완·임진혁, 2011, “정보화마을사업의 의미와 재평가: 지역정보네트워크사업과 비교적 관점에서”, 14(4): 91-110.

17) 본 연구는 단일사례 연구로써, 여기의 분석결과들을 정보화마을의 모든 사업에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질적연구방법으로, 사업의 역동성 측면에서 진행되어진 연구이기에 충분한 연구가치가 있었다고 본다.

- 안전행정부·한국지역정보개발원, 2011, 「정보화마을 운영평가」.
- 안전행정부·한국지역정보개발원, 2014, 「정보화마을 13년사」.
- 이자성·김종숙, 2011, “정보화마을의 자립운영 요인에 관한 탐색적 연구: 경상남도 정보화마을을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3(1): 105-128.
- 이팔진·이태영, 2008, “IT 기반 INVIL-BSC 모형을 이용한 정보화마을 성과평가”,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11(4): 109-131.
- 이현정, 2013, 「70년대 새마을운동에서 마을공동체의 역동성 비교연구」,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박사학위논문.
- 임광현, 2009, “정보화사업평가: 정보화마을을 중심으로”,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12(4): 141-170.
- 정우열·손능수, 2007, “정보화마을에 대한 성과평가 연구: 경북지역의 6개 정보화마을을 중심으로”,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10(3): 19-43.
- 최연태·오현주, 2010, “정보화마을 웹사이트 이용도 분석 및 활용도 제고방안: 클릭스트림 데이터를 이용하여”, 「서울행정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 행정자치부, 2001, 「정보화마을 조성계획」.
- 행정안전부·한국지역정보개발원, 2008, 「정보화마을 특성별 발전방안」.
- 황봉기, 2012, “정보화마을의 성과평가에 관한 연구: 강원도 정보화마을을 중심으로”,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15(4): 47-70.
- Babbie, Earl R, 2007, *The Practice of Social Research*, Belmont, CA: Thomson Wadsworth.
- Rueschmeyer, Dietrich. 2003, "Can One or a Few Cases Yield Theoretical Gains?", in Mahoney and Rueschemeyer, *Comparative Historical Analysis in the Social Sciences*,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이현정: 고려대학교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논문: 70년대 새마을운동에서 마을공동체의 역동성 비교연구), 현재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선임연구원으로 있다. 주요 관심분야는 지역개발, 새마을운동, 비교행정, 복지정책 등이다(ton0903@hanmail.net).

투 고 일: 2015년 10월 27일
 게재확정일: 2015년 11월 18일

Abstract

Reality of Information Network Village: Focused on Bandibul Village Case

Hyun-Jung Le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which factors interacts with what kind of procedure when carrying out the Information Network Village project in one Village. That is to analyze dynamics of the actual project and the following findings are drawn accordingly.

First, accessibility to informatization for village people was increased through base establishment of informatization and education which connected to make even information a part of life. As information became routine and income rose, harmonization as well as solidarity among people were reinforced than before. Second, inconsistency of indicators which is evaluated with the goals of reducing the digital divide, strengthening regional competitiveness, activating local community can be noticed.

It is called as the second Saemaul project in Korea and in the situation that many foreign countries are visiting to benchmark the Information Network Project. This study finds out factors to be developed and to be modified actually and furthermore, it makes to check whether it is appropriate to spread Information Network Village project abroad as a development model of local community.

Key Words: Information Network Village, digital divide, regional competitiveness, local community, bandibul Village